Entertainment p/17

송혜교 강동원 부부연기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추신수 다음 팀은 텍사스"

ENTERTAINMENT p/12

물대포에 불도저까지… '혼돈의 지구촌'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 시위 사태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이날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고 퇴진 하라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른쪽은 불도저를 몰고 온 시위대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 유럽연합(EU)과의 협력 협정 체결 중단에 항의하는 야권의 시위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다. /AP 로이터 연합뉴스

세 남매 출발선에 세운 이건희

재용-전자금융, 부진-중화학, 서현-패션 '3세 분할승계' 밑그림 사실상 완성 분석

Issue & View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의미

/장태근기자 ksu@metroseoul.co.kr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재계의 예상을 깨고 부회장으로 승진하자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삼성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의 올해 사장단 인사에서는 겉으로는 특별함이 없다. 그러나 내면은 '이서현(사진) 사장 승진'으로 세 자녀가 분할 승계를 위한 스타트 라인에 정렬한 것으로 보인다.

◆ 최대 규모 인사 핵심은 이서현

삼성이 2일 사상 최대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사장 승진 8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6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라는 성과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삼성전자의 성공 경험을 계열사로 전파하는 한편,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혁신을 선도할 인물을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서현 사장의 승진이다. 이 사장이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를 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세 자녀 간 분할 승계를 위한 구도가 마련됐다.

삼성에버랜드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25.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각각 8.37%씩을 갖고 있다.

종합해볼 때 세 남매 경영 승계 구도하에 향후 이부진 사장이 중화학 계열사, 이서현 사장이 패션 계열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용 전자·금융 지배 완성형

이번 인사에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전자·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도 관심거리다. 삼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인사의 최대 특징은 삼성전자 출신의 약진이다. 특히 사장으로 승진한 삼성전자 출신들이 대거 계열사 사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는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성공 DNA를 계열사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전자·금융 계열사 지배력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조만성, 원기찬 삼성전자 부사장이 각각 계열모직 대표이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이선종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 이부진 사장 승진은 언제

이번 인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부회장 승진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년가량인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예상되던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의 부회장 승진은 차치해도, 오너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장 취임 후 2년 만에 부회장에 올랐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0년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해 올해로 만 3년째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의 구속 등 재벌가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인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본격적인 분할 승계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3~4년 더 걸릴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여야 고성 주고받던 그순간 임명 강행

박 대통령,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복지부장관 등 임명장… 정국 급랭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30분 청와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세 사람의 공식 임명을 미뤄왔던 박 대통령은 감사원과 검찰 조직의 안정, 기초연금 파동 수습 등 국정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라인과 내각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 청와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민주당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으로 문 복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데다 새누리당이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뒤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명안 발표는 경색된 정국 해법을 찾고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의 여야 4자 회담이 진행되던 중 이뤄져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이정현 홍보수석은 4자 회담에 미칠 여파에 대해 "일단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국정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자 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과거를 묻지 마세요?

기자 수첩

박선옥 <건설산업부 기자>

2일 서울 수년간 분양을 하네 마네 시끄러웠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아파트가 드디어 홍보관을 열고,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두산중공업이 선보일 가칭 '프로젝트 D'가 그 주인공이다.

'프로젝트 D'는 '갤러리아 포레' 분양 이후 개발 시계가 멈춘 성수동 일대에 다시 한번 초고층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한 탁월한 입지와 명품 주거공간으로 짓겠다는 시공사의 계획이 어우러져 벌써부터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눈치다.

어느 프로젝트에나 사연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 사업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다 사업이 지체돼 두산중공업이 최종으로 사업권을 인수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약간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 살고 있던 집을 날리게 됐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권을 인수한 두산중공업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 홍보관에서는 과거 지역조합으로 추진되던 그 사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정색까지 하면서 "우리랑은 관계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답변은 너무 매몰차기만 하다.

럭셔리 아파트로 지어지는 만큼 과거에 시끄러운 부지였다는 점을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집을 뺏긴 원주민들의 땅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들의 사정까지 부정하는 홍보관의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

악수하며 시작했지만…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여야 4자회담'에 앞서 잘해보자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실망 넘어 분노"

"감사원장 임명 국회무시" 격앙 여야 4자 회담 성과없이 끝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간 4자 회담이 2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은 3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견을 절충하기로 했다.

회담 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 "예의와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분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임명 발표 시각은 여야 간의 비상한 타협 대화가 오가는 4자 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보여준 새누리당의 대화 제스처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 쇼'였는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까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담 중 황 대표와 김 대표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고성은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터져나왔다.

김 대표는 문형표 장관 임명 강행 속보가 뜬 직후 "계속 예산 얘기만 할 거냐"고 소리쳤고, 황 대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누가 죽나 한번 보자"고 말하는 등 언쟁을 벌였다. /김민준기자

뉴스 & 뉴스

바이든 미 부통령 방한기간 DMZ 방문키로

● 한국과 중국, 일본 순방을 위해 1일(현지시간) 출국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키로 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순방 일정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7일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을 위한 기념식에 참석한 뒤 DMZ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동서화합 이병석(왼쪽) 국회 부의장, 박지원(왼쪽 둘째) 민주당 의원 등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 창립식에서 서로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내년 서울시장 출마 계획 전혀 없다"

●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설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얘기로 그는 "본격적으로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채동욱 의혹 정보 유출 靑행정관이 부탁"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 신상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도 현재 확인 중이다"며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본적 등을 알려주며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조 행정관이 업무와 관계없는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한진중 회장 부인 숨진채 발견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부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조 회장 부인 A(61)씨가 용산구 한남동 빌라 자택 내 침실에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A씨가 기도 폐색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야근후 귀가 한인 여성도…

미국 열차 탈선사고 4명 사망 뉴욕서 간호사 근무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외교부 관계자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한인 여성 안모(35)씨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피해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안씨는 이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열차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뉴욕시 브롱크스에서는 그랜드센트럴역으로 향하던 메트로노스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일 현지시간 뉴욕 브롱크스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한 구조 요원이 사고 열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급커브 도중 과속과 브레이크 이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열차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노스 철도는 뉴욕시와 북부 교외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통근열차다. /조선미기자

49명에게 187억 '피눈물'

담보대출 사실 숨긴 채 '종로타운' 사기분양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사 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에게 분양대금 186억9000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거액을 대여받아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2003년 11월 사업 토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에는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도 맺었다.

이들은 2008년 1월 이후 분양되지 않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40호실에 대해 KB부동산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52억원 등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르메이에르건설은 이처럼 미분양 호실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1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했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씨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국가고시 합격자 중위 이상으로 임관

국방부가 행정·외무·입법·사법원 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내년부터 중위 이상으로 임관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내년 1월부터 적용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현재는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관련 병과의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고시 출신 장교들은 정부 부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정책과 실무 부서에서 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은기자

자선냄비 모금 시작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된 첫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련된 자선냄비에 한 시민이 카드로 기부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근로자 귀국 지원사업 오디션 열어 모델 2명 선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일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사업 홍보 CF 모델 선발대회 오디션을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귀국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방송 광고에 출연할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5~27일 공단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returnmobi)에서 예선을 통해 응모한 112명의 참가자 중 21명이 심사를 봤다.

네팔 출신의 크리시나 쿠마르 체트리(34)와 파키스탄 출신의 라리프 라자 에드난(24)이 최종 모델로 선발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케이블 방송으로 방영될 공단의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사업 홍보 TV광고의 주연 모델로 활동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자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뭉친,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피부 황색 또는 반점), 여드름 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수분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방해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나오는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관질환 빈혈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서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범람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숙변이나 숙변이 쌓이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한의학박사 허정구 원장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축적된 담석이나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女도우미 없는 호빠 유흥주점은 아니다”

부산지법 중과세 취소 판결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구청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박춘기)는 부산 수영구 한 건물의 소유자인 A(65)씨가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수영구에 있는 지상 8층 건물을 33억원에 매입하고 취득세로 2억2000만여 원을 신고, 납부했다.

A씨가 2012년 5월 지하 1층을 주점으로 임대하자 수영구는 이 주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4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을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주점은 객석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절반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규정했다.

A씨는 수영구의 처분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둔 적이 없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점에 '여성전용클럽'이라고 기재된 외부 간판이 설치돼 있고 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점은 여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물가 3개월연속 안정

부산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2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지난 9월 0.9% 상승과 10월의 0.7% 상승에 이어 3개월 연속 1% 미만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0.4% 상승하는 데 그쳤고 앞달보다는 0.2%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생선·조개류, 과실류, 채소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2% 내렸고 앞달에 비해서도 3.8% 내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했다.

고용량 조명 LED로 교체…해변 가로등주 음악전용 스피커 54개 설치…

광안대교 세계 야간경관 명소로

특화사업 완료 6일 점등식

불꽃축제로 소문난 부산 광안대교가 첨단 LED 조명시설을 갖추고 오는 6일 점등식을 열고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 명소로 거듭난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광안대교가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 명소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광안대교의 기존 고용량 경관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일 오후 4시 30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특설무대에서 점등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점등식은 군악대의 식전공연, 경과보고, 버튼 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해변의 음향장비가 제공하는 음악과 어우러진 다양한 주제의 경관조명 연출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광안대교의 경관조명 새 단장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색광으로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가능한 LED 경관조명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조명등 시공을 마무리하고 콘텐츠(연출 프로그램)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은 대형 교량의 경관조명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총 사업비 104억3000만원)를 자랑한다. 또 세계 최초로 해변 가로등주에 음악 전용 스피커 54개를 설치해 경관조명등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입체적인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사업 완료로 광안대교는 경관조명 분야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됨은 물론, 이곳을 찾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기억에 깊이 남을 세계최고의 야간 경관의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 투광 조명 형태의 야간 경관 조명을 LED 경관조명등으로 교체해 3색(빨강·초록·파랑) 광을 이용한 다양한 풀 컬러 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기에너지 또한 기존 대비 66% 정도 절감돼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조명 연출은 기본 조명과 연출 조명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상시간대에는 음악성이 거의 없는 기본조명으로 연출된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특색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특정 시간대에는 다양한 음악성이 있는 연출조명이 시행된다. 봄·가을·겨울에는 주중 2회, 주말 3회로, 여름철에는 휴가철과 해수욕장 내방객이 많음을 감안해 주중·주말 전체 3회 정도로 매일 실시된다. 설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특정일에는 특별 콘텐츠를 추가해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광안대교 경관조명이 새롭게 단장돼 부산시의 품격 높은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명륜 아이파크 입주일정 '삐걱'

주민 짐만 아파트에 놓은 채 인근 숙소생활 불편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공사 일정 차질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 동래구는 2일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명륜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임시사용 신청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천409가구 규모로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입주 시작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늦게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승인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이삿짐을 들고 찾은 10여 가구 입주민들은 짐만 아파트에 넣어 놓은 채 인근 숙소에서 지내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경 등 남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일 중 다시 임시사용을 신청해 입주 예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입주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양 무청 말리기 한창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조산마을 조갑석 씨 농가에서 겨울철 별미음식 재료인 무청 말리기가 한창이다. 무청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칼슘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모범선행시민상 12명 선정

부산시는 구포장터3·1만세운동재현 등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전파에 헌신한 백이성씨를 비롯 올해 3분기 모범선행시민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했다.

백씨를 비롯해 28년간 매일 아침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봉사 활동을 해온 김명선씨, 지난 10월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쫓아가 격투 끝에 검거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박준용씨 등 모두 12명이 모범선행시민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3일 오전 9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역 농가인구 10년새 10% 줄었다

최근 10년간 부산지역 농가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농가 인구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부산의 농가 및 농업 경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농가 수는 7714가구로 10년 전인 2002년의 7872가구에 비해 1.1% 감소했다.

2012년 농가 인구는 2만2859명으로 2002년의 2만5231명에 비해 9.4%나 줄었다. 이는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등에 따른 농가의 전출과 인구 고령화로 영농 포기 농업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2년 5512명으로 24.1%를 차지했다.

부산지역 경지 면적도 2012년 6927ha로 10년 전인 2002년의 9704ha에 비해 28.6%나 감소했다.

전체 경지 면적 가운데 논이 4417ha로 63.8%를 차지했고 밭은 2510ha로 36.2%에 그쳤다.

경지 면적이 줄면서 쌀 재배 면적도 2012년 3309ha로 10년 전의 5295ha에 비해 37.6%나 줄어들었다.

쌀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경지 면적 감소에다 시설 재배나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지역 가축 사육 농가는 193가구로 2002년의 296가구와 비교해 34.8% 감소했다.

영농형태는 논벼 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는 30~50% 줄어든 반면 과수 농가는 10년 48가구에서 지난해 8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역 첫 '론 와인기사' 탄생

부산에서 처음으로 '론 와인 기사'가 탄생했다.

프랑스 론와인협회 패트릭 갈랑 회장(와인기사단 그레이트 마스터)은 지난달 28일 부산을 방문해 동래구 안락동 부산와인스쿨에서 기사 작위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갈랑 회장은 새로 임명되는 기사의 양 어깨와 머리에 차례로 칼을 댔다. "술의 신 바커스와 와인 생산자의 수호성인이신 빈센트의 이름으로 그대를 코트 뒤 론(Cotes du Rhone)" 와인기사로 임명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중세시대 국왕이 기사 작위를 임명하는 엄숙한 의식과 흡사했다.

이날 임명된 기사는 ▲조용직 부산와인스쿨 원장 ▲비명진 고려개발 회장 ▲김원 준해정원 산부인과 원장 등 8명이다.

갈랑 회장은 "작위 선정은 프랑스 최고 기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기사 작위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예로운 '와인 훈장'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레종도뇌르 훈장의 등급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론 와인기사단은 현재 전 세계 7개국에 1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10번째 지부가 창설됐다.

탤런트 유지안 이영하, 가수 장미화 등이 기사로 선발돼 활동하고 있다.

/정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난달 28일 론 와인기사 작위를 받은 부산의 와인 애호가들. 가운데 외국인이 패트릭 갈랑 프랑스 론와인협회 회장이자 와인기사단 그레이트 마스터.

"부산진역사 보존가치 높아"

부산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간직한 부산진역사를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일 BDI 포커스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부산진역사(驛舍)'라는 보고서를 내고 현재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놓인 부산진역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필 연구위원은 "현재 토지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부산진 역사와 주변 지역을 모두 헐고 민간 개발을 준비함으로써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지역의 역사·문화의 기록과 흔적의 장소인 부산진역사를 미래 자원으로 보존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 탓 부산 SOC사업비 절반 넘게 삭감

숙원 도로사업 또 지연위기

기초노령연금 등 내년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내년 지역의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삭감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확정된 사업비는 18억4천700만원으로 올해 49억원에 비해 62% 이상 깎였다.

내년 위험도로로 지정돼 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될 곳은 부산에서 모두 5개 도로로 올해 3곳보다 2곳이나 더 늘었지만 오히려 예산은 3분의 2가량 삭감돼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4년 위험도로 개선예산이 깎인 이유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존 9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늘면서 정부가 부담하는 국비 부담(70%)도 덩달아 늘어나 결국 만만한 지역 SOC 예산이 피해를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 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거나 불편을 겪어 주민들이 오래도록 개선을 요청해온 지역의 숙원 도로사업이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북구 만덕동 금덕물산 앞길은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이 높아 좌회전이 불가능한데 인근 아파트 5천 가구 이상이 만덕성당까지 수km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수십년째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2008년 학생을 태운 승합차 음시가 발생한 사상구 대덕여고의 악명높은 오르막길도 경사도를 낮춰 사고위험을 줄이는 실시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버스가 다니지 못해 가파른 길을 걸어서 다녀야 해 도로 확장이 시급한 동구 금성중·고등학교 인근 도로 등 5개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적신호가 켜져 주민과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고 사고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위 심사가 남았지만 복지예산 증가로 위험도로 예산 축소는 거의 확실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역시 복지예산 증가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협동조합 CEO 워크숍 내일 열린다

부산시는 협동조합 대표자의 역량 강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 증진을 위한 '2013년 부산시 협동조합 CEO 워크숍'을 4일 오후 2시 해운대 이르피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협동조합 대표자, 소상공인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사회적경제 이해와 협동적 기업가 정신 제고 및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지역 경제 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부산에는 현재 183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워크숍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사회적경제 이해와 협동적 기업가 정신'이란 주제 특강 ▲소상공인진흥원 이요환 지역본부장의 소상공인지원 정책 안내 ▲부산경제진흥원 최현 부장의 부산시 창업지원 사례관내 ▲부경대 이유태 교수의 소상공인 튼튼경영지원 사업 안내 발표 후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간 업종 간 협동조합 정보 교류 및 지역공헌 강화와 협동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소비자의 날' 다채 행사

부산시는 오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 정보전시회와 세미나,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번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단체 임원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 세미나는 최근 이벤트 행사로 가입 후 유료 회원 자동 전환 요금, 게임 이용료 등 스마트폰용 각종 소액 결제 요금의 과다 및 부당 청구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소액 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market index <2일>

코스피	2030.78	(-14.05)
코스닥	512.89	(-4.37)
금리	3.04	(+0.03)
환율	1057.00	(-1.50)

외국인 채권 6조 만기도래

이번달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보유 국내 채권이 6조원에 달해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통안채) 규모는 총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6조8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외국인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 채권 보유량을 점차 줄이는 추세라 문제다. /김현정기자

주요상장사 4곳중 1곳 적자

국내 주요 유가증권 상장사 4곳 중 1곳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선 3곳 중 1곳이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72개사 중 분석 가능한 455개사 기준더 올해 1~9월에 적자로 전환했거나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총 152개사(24.8%)로 집계됐다. 코스닥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해 12월 결산법인 621개사의 1~9월 적자 기업이 209개사(33.65%)였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원 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병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353-2100
독자센터	02)721-9811

거품랠리, 산타랠리에 바통 줄까

美 증시 승승장구에 일각선 급락 경고 · 사이버먼데이, 증시 호재 출지 주목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 증시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주 뉴욕증시 흐름이 연말 산타랠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주간 기준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각각 22.8%와 26.6% 올랐다.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소비 회복세다. 올 연말 특수가 소비 회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이 끝난 11월 넷째주 금요일)에 이어 2일부터 사이버먼데이(인터넷 쇼핑몰 세일)가 시작된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의 실적이 좋을 경우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증시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동향 역시 관심사다. 오는 18일 열릴 FOMC 회의에선 양적완화 축소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도 출구전략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보단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증시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일정 기간 긴장 상태를 겪다가 이후에는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에 대한 거품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 미국 증시의 거품이 터질 경우 국내 증시도 한파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월가의 대표적인 증시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최근 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20% 더 오를 수 있다"면서도 "S&P500지수가 1600을 돌파했을 때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졌어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800선에 육박한 현 시장에서 거품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이 점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팽팽히 맞선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가 수준은 주가수익배율(PER)로 봤을 때 역사상 평균치 정도"라며 "S&P500 기준으로 본 미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을 10%로 예측하므로 주가 상승폭 역시 이에 상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던지 김현정기자 nice@metroseoul.co.kr

우리 문화유산 담은 기념주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한글, 수원화성, 청자공을 소재로 한 기념주화의 예약 접수를 11일까지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의 전국 2000여 개 창구에서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은행 내년 초 55개 점포 닫는다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 초 55개 점포를 폐쇄한다. 이익을 내는 점포라도 한 지역에 중복된 점포는 통합·폐쇄하거나 새로운 금융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민은행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점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점포는 현재(11월 말 기준) 1205개에서 내년 1월 초 1150개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 초 55개 점포를 통폐합하는 것을 필두로 영업점 개편을 시작한다. 기존 점포 통폐합과 다른 것은 이익을 내는 점포라도 동일 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폐쇄하되 대신 금융 수요가 많은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으로 점포를 이전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인다. 맞벌이 부부 등이 많은 지역에는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는 특화점포(After Bank)를 확대하는 등 고객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는 점포 재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영업점이 입점하지 않는 지역에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점이 설치된다. /이던지기자 nice@

한국영화 대박에 금리도 대박

'관객수 100만' 돌파하면 우대혜택 주는 은행상품 가입자들 요즘 싱글벙글

한국 영화 열풍이 이어지면서 흥행 성적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 관심이 쏠렸다. 메트로신문이 각 은행에 문의한 결과 개봉 영화마다 관람객 100만 명은 가뿐히 넘기면서 해당 상품이 제시한 최고금리를 대부분 충족했다.

2일 우리은행은 한국 개봉 영화의 흥행 성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시네마정기예금 12호로 영화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인' 영화의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 기본금리인 연 2.6%에 0.05%포인트를 얹어준다. 200만 명과 300만 명을 넘어서면 우대금리를 합쳐 연 2.7%, 2.75%씩을 제공한다.

지난 9월에 판매된 11호 '소원'과 9호인 '감시 역시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각각 연 2.75%, 연 3.%의 금리를 달성했다.

하나은행이 선보이는 한국영화 연계 예·적금 상품도 흥행 호조와 함께 출시 당시 제시한 최고금리를 대체로 충족했다.

개봉 한 달여 만에 관람객 수 900만명을 넘어선 영화 '관상'과 연계해 지난 8월 말 나온 '하나무비정기예금'은 연 2.85%의 금리를 확정했다.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 기본금리 연 2.80%에 우대금리 0.05%포인트가 가산됐다.

지난 7월과 9월에 영화 '공작'와 '도둑들'의 흥행 성과와 연계돼 출시된 '하나 e-플러스 공동구매 적금' 역시 각각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 3.6%)를 충족했다.

다만 영화 흥행 성적이 저조해 기본금리에 그친 상품도 있다. '미나문방구'와 연계한 시네마정기예금 10호의 경우 관람객 수 50만 명을 넘어설 때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관람객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기본금리 연 2.80%에 그쳤다. /김현정기자 hkim@

IT기기 잠금푸는 '최후의 비밀번호' 얼굴

출력할 때도 얼굴 인증 한국후지제록스는 얼굴을 알아보고 문서를 출력하는 새 복합기를 2일 출시했다. /한국후지제록스 제공

생체인식 보안 진화—"지문도 모방" 위험에 '페이스' 뜨는 중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의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얼굴이 가장 확실한 비밀번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알려진 지문조차 모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체 인식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얼굴이 솔루션이 된 셈이다.

2일 한국후지제록스는 디지털복합기 '어페오스포트 V C7775'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복합기 최초로 얼굴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웰컴아이 어드밴스' 기술을 적용됐다.

이에 따라 ID 카드나 지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얼굴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 복합기 전면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와 화면이 얼굴을 인증하면 문서 출력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의 작업은 제한된다. 얼굴 인증은 대당 100명까지 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달 3D 영상인식 센서를 만드는 이스라엘 기업 프라임센스를 4000억원가량에 사들였다.

프라임센서는 사람의 얼굴과 동작, 공간의 깊이를 감지하는 센서 개발업체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게임기 '엑스박스 360'의 키넥트에도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폰5S에 지문 인식에 들어간 만큼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6'에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라이벌인 삼성전자도 홍채를 인식하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다. 내년 상반기 등장할 가능성이 큰 '갤럭시S5'에 이 기능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삼성이 '홍채인식 및 근접 센싱 가능한 단말장치 및 방법'이라는 특허를 지난해 5월에 출원한 사실을 최근 확인해준 바 있다. 이 기술은 적외선 조명 없이 스마트폰의 센서에 눈을 가까이 갖다대면 홍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준기자 zon@metroseoul.co.kr

"우리도 스마트 농민" SK텔레콤대표 희망단이 행복 사회적기업인 행복ICT를 통해 2일 진천 청주군의 노점농 사인에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ICT 융합 기술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비닐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이어 로컬푸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것 직라 선보였다. /SK텔레콤 제공

현대기아차 '우울한 내수'

11월 판매실적 전년비 11~12%포인트 줄어

11월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판매 실적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11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9%포인트 줄었고, 기아차는 12.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한국GM은 2.4%포인트 증가했고 르노삼성은 2.3%포인트 증가했으며, 쌍용차는 무려 48.5%포인트나 늘어났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주력 차종의 판매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나머지 3사는 판매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GM은 단종을 앞둔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르노삼성은 SM3와 QM5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쌍용차는 승용차 판매가 줄었으나 코란도 C와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등 이른바 '코란도 패밀리'의 판매가 크게 늘면서 내수 실적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올해 내수 최다 실적을 기록했으며 르노삼성은 월간 최다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쌍용차는 2006년 12월 이후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두 달 연속 1만4000대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같은 기간 개소세 인하에 따른 정책 기저효과 및 영업 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나 나머지 경쟁 업체들의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차와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증가에 힘쓸 계획이어서 이번달 판매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우기자 ferran5@

콘텐츠 불공정거래 피해액 연간 4700억

관련 사업자 70% "심각 수준"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화,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음악 등 11개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콘텐츠 시장의 유통 구조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설문조사한 '콘텐츠 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계의 불공정 거래 경험률은 평균 56.9%에 달했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이 가장 많았고,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으로 불공정 거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으며,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을 기록, 매출액 대비 10.2%에 달했다.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급 지체(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 비용 관련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의 79.7%가 '3년 전과 변화 없다'고 답해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발표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모바일광고 '애플'만 먹었네

올 3분기 점유율 33% 1위 삼성 제품은 노출비율 2위

애플 제품이 모바일 광고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했다.

지난 3분기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와 같은 애플 제품들이 광고 노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미국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 밀레니얼미디어는 3분기 모바일 광고 노출 횟수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애플 제품이 전체의 34.99%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제품은 27.58%로 2위를 지켰고, 이어 블랙베리(7.09%)와 LG전자(4.6%), HTC(3.57%) 순이었다.

제품군별로는 아이폰 시리즈가 20.73%로 가장 많은 광고를 노출한 기기로 꼽혔다. 애플은 아이폰 이외에도 아이패드(7.95%)가 3위, 아이팟터치(6.28%)가 4위를 차지해 4위권 내에 세 품군 3종을 포진시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는 12.24%로 2위를 지켰다. 모바일 광고 점유율 20위권 내에 삼성전자 제품군 7종이 포함됐다.

/박성훈기자 zen@

KT, 2차 협력기업도 동반성장 지원

KT는 1차 협력기업뿐 아니라 2차 협력기업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KT는 2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와 '윙크(WinC)를 활용한 동반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2차 협력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윙크 시스템은 경영 지원, 자금 지원, 공정거래 지원 등 기능을 포함한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금융기관이 KT와 1·2차 협력기업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면 발주 금액의 70%를 지원,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1차 협력기업에 월 3회씩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기업은 납품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어 생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겉만 번지르르… 해외 저가수주의 '덫'

집중진단 '위기의 건설업'

GS건설·삼성엔지니어링 3분기까지 적자 … "리스크 관리 개선해야"

국내 건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공략이 잇따랐다.

올 들어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 시장 진출 48년 만에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삼성물산은 업계 처음으로 연간 수주액 12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건설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기 마련. 국내 경기 침체를 피해 진출한 해외 사업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공종 편중 조금씩 개선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현재 해외 건설 수주액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2억 달러에 비해 줄어든 금액이지만 4년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중동·플랜트 위주의 수주도 개선됐다. 올해 지역별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동이 225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북미 지역도 각각 220억 달러와 62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신규 국가로의 진출도 활발해 대림산업이 오만 헝가리 리비아·라오스 등 4개국에서 처음으로 수주했고, 현대건설은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시장의 문을 열었다. 삼성물산은 보스니아 모로코 호주에 GS건설은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등을 개척했다.

공종별 현황 역시 산업설비(플랜트)가 310억 달러로 수주액이 가장 컸으나 토목(166억 달러) 건축(61억 달러) 등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지역 및 사업 다각화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 … 빛 좋은 개살구

하지만 해외 건설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해외에서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시작된 것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대형 건설사 한 곳의 연간 수주액에 불과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게 2005년(109억 달러)의 일이다. 이후 2008년(476억 달러) 40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10년 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1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가기까지 고작 5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과열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와 수익률 저하라는 문제가 뒤따랐다. 현장 및 리스크 관리, 클레임 해결 능력 등이 급증하는 일감을 뒤좇지 못해서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 저가 수주로 3분기까지 적자를 냈고, 심지어 GS건설은 부도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GS건설 허명수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뒀고, 삼성엔지니어링 박기석 사장도 교체됐다.

문제는 해외 사업에 따른 부실이 올해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2014년 해외건설 잠재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내년 해외 건설 공사에서 공기 지연과 공사 지체 보상금 등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 규모가 40억700만~195억60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실장은 "해외 건설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공사 수행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등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다"며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3820@metroseoul.co.kr

수도권 월세가격 하락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의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달보다 0.1%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2일 밝혔다.

8개 시·도는 강원도·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도를 가리킨다.

수도권 월세 가격도 0.1% 하락했다. 경기(0.0%) 보합이었지만 인천(-0.3%)과 서울(-0.2%)의 내림폭이 컸다.

지방 광역시(0.0%) 중에서는 광주와 대전이 각각 0.1%씩 소폭 올랐고, 울산은 0.1% 떨어졌다. 대구와 부산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박선옥기자

"사랑의 연탄 4만장 배달해요" 롯데건설이 지난 주말 서울 중계동 104마을과 부산에서 연탄 4만장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 회사 임직원들이 연탄을 옮기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올해 법안 통과하면 내년 주택투자 5%↑"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올해 발표된 정부의 주택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주택 투자가 5%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4·1, 8·28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국회 입법화가 무산될 경우엔 주택 투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4·1대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8·28대책 등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 투자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3조9000억원의 산업생산액 증가와 3만 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8년 만에 플러스 효과를 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투자 부진으로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5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4만4000명 줄어들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건산연은 "올해 정부 대책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 금융시장이 형성됐다"며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 증가가 주택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현정기자 h.kim@

항공기 이착륙 스마트폰 허용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도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비행기 이착륙 시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행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달 안전 규정을 개정해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내 전화 통화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항공사가 전자장비 사용 승인을 받고 지재 매뉴얼을 고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수개월 내 승객이 기내에서 전자장비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연말 분양 서울 '온탕' 서울밖 '냉탕'

강남권 4곳 포함 6곳 순위 내 마감 … 송도·화성 아파트 청약 미달

연말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 공급된 아파트는 연내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누렸지만 서울 밖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11곳 중 서울에 위치한 6개 단지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이 가운데 강남권에 위치한 4곳은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

1순위 마감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률을 보인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로 평균 25 대 1을 나타냈다.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위례2차 아이파크' 18.8대 1,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15.9대 1,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7.2대 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들 단지는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중소형이 다수 또는 전부 섞여 있었음에도 뛰어난 입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부동산에서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외 마포구 합정동 '마포 한강 푸르지오2차'가 3순위까지 2.5대 1,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강동 이스트팰리스'가 1.1대 1로 순위 내 마감됐다.

이에 반해 서울 밖에서 분양된 5개 단지는 1곳만이 3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고, 나머지 4곳은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급된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가 0.47대 1의 가장 낮은 청약률을 보였고, 경기도 화성에서 선보인 '화성 봉담 우방아이유쉘 코아'와 '화성 양우내안애'는 각각 0.55대 1, 0.67대 1을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취업시장 신조어들

얼굴도 스펙 '페이스펙'… 대기업 시험일 담합 'A매치 데이'

취업 한파가 갈수록 세게 몰아지면서 신조어도 덩달아 우울해지고 있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은 2013년 채용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조어로 페이스펙, 서버전형, A매치 데이 등을 꼽았다.

◆얼굴이 스펙? 페이스펙

페이스(face)와 스펙(spec)의 합성어로 얼굴도 학벌·학점·토익 점수처럼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84%가 채용 시 지원자의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과부하 땀 속 터져. 서버 전형

일명 '사이트 전형'이라고도 불린다.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한꺼번에 지원자들이 몰리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등장한 말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도 채용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며 LG전자, 포스코 등에서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5개론 부족? 취업 8대 스펙

인사 담당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취업 5대 스펙(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에 봉사, 인턴, 수상 경력까지 더해진 취업 8대 스펙이 등장했다. 탈스펙 바람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직자의 87%는 여전히 스펙을 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택권마저 빼앗겨. A매치 데이

우수 인재가 여러 곳에 중복 합격하면서 경쟁 기업에 빼앗기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같은 날 시험을 치르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올해는 10월 19일 한국은행 등 금융 공기업 6곳이 일제히 인사 시험을 진행해 취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구직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밖에 취업 카카오톡·패밀리의 줄임말인 '취톡방', 고졸 채용 확산에 따른 '슈퍼고졸',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구인·구직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인 '소키즈' 등도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로 꼽혔다. /이국명기자 kmlee@

미니 온풍기 잘 나가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겨울철 1인용 가전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미니 가전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미니 온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시간선택제 5% 목표 에너지 공기업 채용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채용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전체 채용 인원의 5%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충당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7일까지 2014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및 시간제 일자리 지원자를 모집한다.

한국남동발전도 내년 상반기 채용 규모(160명)의 5%인 8명을 시간선택제로 뽑을 예정이다.

동서발전 역시 내년 4월 채용 예정자 중 시간선택제로 11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시간제 채용 규모를 55명으로 잡고 채용 계획을 짜고 있다.

매년 700~8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한국전력도 전체의 5% 정도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메울 예정이다.

하지만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만한 마땅한 직군이 없어 아직 시간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알뜰폰 향한 대이동 시작됐나

오프라인 판매 효과로 지난달 가입자 순증규모 이통3사보다 많아

알뜰폰(MVNO)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번호이동 시장에서도 알뜰폰은 가입자 순증세가 이통 3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9264명인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고객은 6만3029명에 달해 총 5만3765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반면 이통 3사는 LG유플러스만 2만2027명의 순증을 기록했을 뿐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만3230명, 2만2512명의 순감을 기록하며 내리막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알뜰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우체국, 이마트,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펼치며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 2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100만 가입자 돌파된 점을 고려하면 약 14개월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00만 명 중 4%가량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알뜰폰이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알뜰폰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단말기 수급, 보조금 문제, 본인 인증 제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판매에만 매달리던 알뜰폰이 우체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한 점이 성장세를 견인했다"면서도 "여전히 '알뜰폰'에 값싸고 서비스는 별로인 통신사로만 생각하거나 알뜰폰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에서 알뜰폰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말기 수급 문제로 인해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말기 수급 문제나 본인 인증 문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서둘러 해소해 이용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 TV "이웃돕기도 스마트하게" 삼성전자가 오는 25일까지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삼성전자 S 데이 스마트 TV 크리스마스 위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2012년, 2013년형 삼성 스마트 TV 사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객들이 직접 삼성앱스TV에서 '크리스마스 위시' 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샐러리맨 100명중 1명만 '임원'된다

30대 그룹 직급별 승진확률… 사장은 1만명당 3명

30대 그룹에서 샐러리맨의 별이라는 임원을 달 확률은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장까지 오를 확률은 0.03%에 그쳤다.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216개 계열사의 임원 현황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대기업 임원은 총 9527명으로 2008년(7520명)보다 26.7%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직원 수는 94만2184명으로 5년 전(72만1848명)보다 30.5%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직원 대비 임원 비중은 2008년 1.04%, 2009년 1.06%, 2010년 1.06%, 2011년 1.05%, 2012년 1.05%, 2013년 6월 1.01% 등으로 '1%'를 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상무(이사)에서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하는 확률은 매 직급마다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직원에서 상무의 비중은 0.50%, 전무는 0.12%, 부사장은 0.06%, 사장은 0.03%였다. 결국 사장까지 승진할 확률은 1만 명당 3명에 그쳤다.

평균 나이는 상무 51.4세, 전무 54.5세, 부사장 55.7세, 사장 57.2세로 2~3세의 터울을 보였다. 상무부터 사장까지 30대 그룹 임원 전체가 50대로 채워져 있다.

30대 그룹별로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70%인 OCI였다. 영풍(2.63%), 동국제강(2.25%), 두산(2.24%), 대림(2.19%), 에쓰오일(2.12%)도 임원 비율을 2%대로 유지했다.

반면 임원 문턱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로 0.38%에 불과했다. KT(0.43%), 대우조선해양(0.60%), LG(0.66%), 현대자동차(0.78%), 포스코(0.79%), 현대중공업(0.82%), 한진(0.85%), 롯데(0.86%), 금호아시아나(0.92%)도 1%대를 넘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임원 비율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1.15%를 기록했고 현대차의 임원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0.78%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Russia

…ицом Игр Сочи может …гать каждый

metro Ecuador

나무로 만든 카트 레이싱 인기

에콰도르 키토에서 길거리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나무 자동차 경주'에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나무 자동차 경주는 10대 청소년들이 목재로 만든 카트를 타고 길거리를 내달리는 시합이다. 어린 학생들이 나무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익살스러워 얼핏 장난처럼 보이지만 40년 역사의 전통 있는 행사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달러(약 53만원)가 수여된다.

metro HongKong

狗肉煲 多是寵物

《新快報》報道 …羊肉和狗肉混… 羊隻也未經屠宰 …近50隻羊和狗 …位於…很快又死灰復燃 …和竹桀搭建 …名的肥肉寄 … 在場發現70多隻羊和狗。

겨울철 양·애완견 밀도살 성행

중국에서 추운 겨울철 양고기와 개고기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밀도살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광둥성 둥관시 당샤진과 장무터우진에서 밀도살장 두 곳이 발견됐다. 개고기, 양고기 수요 급증으로 당샤진에서만 하루 평균 50마리 정도가 도살되고 있다. 도축하는 개 대부분은 애완견이고 정은 도축 검역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은 "오수가 흐르는 바닥에 양고기와 내장 등이 뒤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얼굴'

러시아 국민 1만7000명 얼굴사진 모아 초대형 얼굴부조 제작 · "소치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최근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러시아인들이 이색 프로젝트 '올림픽의 얼굴'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만여 명이 3D 스캐너로 자신의 얼굴을 스캔한 뒤 이를 다시 3D 프린터로 복원, 올림픽 공원의 대형 벽면에 얼굴 부조 형태로 새기는 초대형 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메가폰 사의 전략 마케팅 부장 아나스타샤 오르키나는 "올림픽의 얼굴들을 위해 높이 8m, 폭 6m의 대형 특수 벽면이 설치됐고 이미 한쪽 벽면이 러시아 올림픽 팬들의 얼굴로 채워졌다"며 "올림픽의 얼굴들 벽이 완성되면 모두 1만7000명의 얼굴이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동원된 특수 스캐너가 한 달 동안 러시아 30개 도시를 돌며 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얼굴을 촬영하게 될 것"이라며 "올림픽을 사랑하는 팬은 누구든 이번 프로젝트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아시프 칸이 런던에서 초청됐다.

아시프는 기자회견에서 "3D 기술 및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총동원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 건축 양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3D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다"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이번 작품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멋진 얼굴을 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얼굴을 스캔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열성적으로 동참해주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의 얼굴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을 위해 '올림픽의 첫 번째 얼굴'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멋진 얼굴 사진을 제공한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소치 올림픽 관람 티켓을 제공한다.

/안드레이 베스티아노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Aulas de sol

19세 캐나다 여성 브라질 노숙자 모아 영어·수학 자비교육

오후가 되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이리 보에 노숙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보통은 밤 시간에 추위와 비를 피하러 모여들곤 했지만 이번엔 배움을 위해 모였다는 점이 다르다.

19세 캐나다인 벨리나 켄디넘은 거리의 시간들을 위해 수업을 하고 있다. 켄디넘은 브라질에서 거주하는 17개월 동안 포르투갈어를 배워 현재는 노숙자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버스 174'라는 영화(브라질 청년이 빈민층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납치한 사건을 묘사)를 보고 브라질에서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자신이 길에서 수업을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켄디넘은 "기부로 얻은 음식을 가져와 수업 전 항상 함께 먹는다. 식사는 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이다"며 "학생들의 위생과 심리 상태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의 길거리 수업은 교실을 지나는 행인들뿐만 아니라 네티즌의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해 벌써 페이스북에서 1만 9000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에 거주할 당시 모았던 돈으로 브라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행자 비자가 만료되는 3개월 뒤 캐나다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는 "거리의 노숙자들이 전에 무섭지도 않을뿐더러 사회에서 보듯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수업이 계속 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우데자네이루에는 현재 558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74%는 초등학교를 마쳤으며, 대학 졸업자도 2.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한국형 누아르 '창수' **임창정**

<없는 척 착한 척 있는 척>

'3척' 보통남자 창수 캐릭터 나와 닮았죠

[임]창정스럽지 않은 영화다

배우 임창정(40)이 주연을 맡은 영화 '창수'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다. 이 같은 생각은 임창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영화나 다 소중하지만 임창정은 더 아프고 신경 쓰이는 자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창수'는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징역살이 대행업자 창수(임창정)가 내일을 살고 싶은 여자 미연(손은서)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비극을 담은 한국형 누아르 영화다.

◆ 창수, 모든 남자 이야기

'창수'는 슬플 창(愴), 목숨 수(壽), 슬픈 운명을 타고난 한 남자의 끝은 인생 이야기를 그렸다. 징역살이 대행업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 박창수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첫사랑 여인 미연이 찾아오고, 또다시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기구한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다. 창수는 그냥 모든 남자들을 지칭하고 있다. 남자들은 미워할 수 없는 허세와 잘난 척이 있다. 잘난 남자도, 못난 남자도 다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줘도 다 퍼주고 그게 의리인 줄 알고 멋있는 줄 안다. 그러고 후회한다. 이게 창수고 그게 남자다. 일반적인 보통 남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나와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특히 임창정은 창수의 모습을 '돈키호테'라고 표현했다.

임창정은 "남자들은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는, 첫눈에 반하는 게 분명 있다"며 "남자는 누구나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돼 있는 '돈키호테' 같은 게 있다. 여성 관객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자 위해 목숨 바치는 돈키호테 면모도

이미지 변신? 코믹배우 꼬리표 나쁘지 않아

◆ 흥행보다 개봉에 감사

'창수'는 관객들 앞에 영화를 선보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2년 전인 2011년 7월 모든 촬영을 마쳤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배급사가 확정되지 않아 결국 개봉을 하지 못했다.

임창정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이 영화가 개봉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영화 흥행보다 개봉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 당시 제작비가 모자라 저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원래 수당의 4분의 1만 받고 찍었다"고 밝혔다.

'창수'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그 이후에도 개봉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 그는 "'창수'는 후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영화제 상영 때와는 편집이 조금 달라져 아쉬움이 있지만 무게도 있고 여운도 있다"고 강조했다.

◆ '공모자들' '창수' 이미지 변신?

영화 '위대한 유산' '색즉시공' '1번가의 기적' 등을 통해 삼류 양아치, 찌질남 전문 배우란 수식어가 붙었던 임창정이 '창수'를 통해 변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공모자들'로 과감히 연기 변신을 시도한 임창정은 '창수'에서도 기존의 웃음기 대신 진지함을 담았다. 배우 임창정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기대하는 대중이라면 의아해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임창정은 "굳이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이런 영화 쪽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코믹 전문배우로 기억된다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악역도 잘할 자신이 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형윤기자 yow@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카잇드데이)을 디자인/박은지

생명 나눔으로 마무리하는 2013년

헌혈 송년회 이벤트

삼삼오오 모이는 송년 모임! 올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은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산타가 되어보는건 어떨까요?

참여 방법 연말을 맞이하여 3인 이상~50인 이하 각종 동호회, 지인 모임 등(모임 제한 없음) 헌혈을 송년 문화로 만들어 주세요

- 1단계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한다. (헌혈버스 포함)
- 2단계 헌혈 후 기념품 대신 희망풍차 기부권을 선택한다.
- 3단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응모한다 (필수입력사항: 헌혈자 이름 및 헌혈증서번호)

(희망풍차란?)

당첨자 경품
희망상 (1팀) – 피자 10판
사랑상 (5팀) – 피자 5판
행운상 (20팀) – 피자 3판 (경품당첨자 선정기준: 추첨으로 결정)

행사 문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 (1600-3705)

참여 기간 2013. 11. 18 (월) ~ 2013. 12. 31 (화) 까지

발표 일자 2014. 1. 15 (수) 17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헬멧 벗는 크레용팝 정대만 탈피 민도희

슈퍼 스타일리스트 선발 '패션킬라' 21일 첫방

헬멧을 벗은 크레용팝(사진 오른쪽)과 정대만 스타일에서 탈피한 민도희(왼쪽)가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온스타일은 패션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5명의 스타일리스트 중 1명의 슈퍼 스타일리스트를 선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패션킬라'를 21일 첫 방송한다. 5명의 스타일리스트는 배우 윤소이, FT아일랜드의 이홍기, 걸그룹 타이니지의 멤버이자 tvN '응답하라 1994'에서 조윤진 역으로 출연 중인 민도희, 개그우먼 안영미, 걸그룹 크레용팝 등과 팀을 이뤄 이들을 패셔니스타로 탈바꿈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8주간 진행되는 방송에서 이들은 매회 1개의 미션을 받아 경쟁한다. 심사는 시청자 투표로 이뤄지며 전체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다.

이번 방송에는 김지혜(고준희·포미닛) 서수경(소녀시대) 전진오(샤이니·FT아일랜드) 구동현(에이핑크) 김하늘(보그 걸르 파보 담당) 등의 스타일리스트가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n@

"이번엔 따뜻한 상남자"

150억원 대작 '감격시대' 최고 파이터 맡은 김현중

한류스타 김현중이 KBS2 새 수목극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으로 안방에 돌아왔다. 2010년 방송된 MBC '장난스런 키스' 이후 3년 만이다.

'예쁜 남자'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감격시대'는 한·중·일 3국의 청년 협객들이 펼치는 사랑과 낭만을 묵직하게 그려낸 로맨틱 누아르다. 방학기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15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이다.

김현중은 2일 역삼동 라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전작들에서 꽃미남 이미지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극중 김현중은 날렵함을 주특기로 가진 다국 최고의 파이터 신정태 역을 맡았다. 그는 외리파 주먹으로 병약한 여동생을 돌보며 가족과 연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순정남이다. 옥련(진세연)과 가야(임수향)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김현중은 "신정태는 아픔이 매우 많은 친구"라며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외롭고 쓸쓸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정이 많은 캐릭터"라고 자신의 배역을 소개했다.

'감격시대'는 중국 선양과 상하이에서 1개월에 걸쳐 현지 세트 촬영을 진행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는 "액션신도 많이 연습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니까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유정훈기자 yss@metroseoul.co.kr

두 여인 사이 '웃음꽃' 배우 임수향(왼쪽부터), 김현중, 진세연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에서 열린 KBS2 새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효성, 섹시하고 러블리한 걸~

싱글 발매 앞서 티저 공개

4인조 걸그룹 시크릿이 멤버 전효성의 티저 이미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을 알렸다.

시크릿의 소속사는 9일 세 번째 싱글앨범 발매에 앞서 전효성의 개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2일 오전 시크릿의 공식 팬 카페를 통해 공개된 이미지는 시크릿 특유의 밝은 느낌을 표현했다.

티저 이미지에 등장한 전효성은 여성스럽게 머리를 한 쪽으로 들어내린 채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하트와 리본으로 장식된 편지를 품에 안고 설렘을 표현했다. 짧은 분홍색 상의를 입고 군살 없는 허리 라인을 드러내 노출 없이도 섹시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크릿은 전효성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멤버들의 이미지를 차례대로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컴백을 준비한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을 올려 네티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장성준기자

KCM OST로 가요계 컴백

연예병사로 복무하다 전역한 KCM(사진)이 드라마 OST로 가요계에 복귀했다.

KCM는 현재 방영 중인 tvN 월화극 '빅스엣볼'의 OST 파트 3 '유게 마소서'의 음원을 2일 발표했다. 더 원·박완규에 이은 OST 참여다.

지난달 18일 방송을 통해 먼저 공개된 이번 OST 곡은 시대극 분위기에 걸맞은 멜로디와 편곡이 돋보이는 정통 발라드다. '아무리 힘들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앞서 7월 국방부는 이른바 '안마방 논란' 등으로 불거진 군 기강 해이 사건을 이유로 연예병사 제도를 16년 만에 폐지했다. 이후 KCM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영창 4일의 징계를 받고 3월 조용히 제대했다. /박건환기자 kkh94276

신보라 '꽁꽁'으로 가수 데뷔

노래 잘하는 개그우먼 신보라(사진)가 가수로 정식 데뷔한다.

소속사인 YMC 엔터테인먼트는 2일 "신보라가 발라드인 디지털 싱글 '꽁꽁'으로 가수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꽁꽁'은 이날 멜론, 벅스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다.

'꽁꽁'은 케이윌·박정현 등 주로 발라드 가수들의 곡을 만들어온 작곡가 이주호의 작품이다. 복고풍 멜로디에 16인조 현악기 반주와 풍성한 코러스가 감정을 고조시킨다. 노랫말은 초겨울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았다. 신보라는 6일 가요 프로그램인 KBS2 '뮤직뱅크'를 통해 첫 무대를 선보인다. /장성준기자

꼼꼼IT리뷰 – 비츠바이 닥터드레 '뉴 스튜디오'

'박태환 헤드폰' 사운드 진화

내장 배터리 LED로 잔량 표시 고음·중저음 보강

'뉴'가 새겨진 이 헤드폰은 어느덧 디자인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대표 모델이 됐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주요 경기 때마다 이 제품을 쓰고 나와 10~20세대에서는 '워너비'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타벅스에서 맥북에어를 켜놓은 채 이 제품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오디오 관련 기기에 일가견이 있는 마니아들이 따끔한 충고를 잇따라 던졌다. "예쁘고 스타일이 살긴 하는데 성능은 이름값에 미치지 못한다."

비츠바이 닥터드레의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다. 최근 CJ E&M이 유통을 맡아 새롭게 출시된 '뉴 스튜디오'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고, '욕'에 타는 개선됐을까.

특유의 수려한 디자인은 대체로 유지했다. 헤드밴드와 이어패드의 컬러를 일치시킨 점, 헤드밴드에 있던 나사가 사라진 점,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해 건전지가 필요 없게 된 점,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LED가 점식으로 바뀐 점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품성이 개선됐다.

스튜디오의 성능 문제는 간단히 말해 저음에 특화된 표현력이다. 즉 고음이나 중저음을 드러낼 때는 정작 프리미엄 헤드폰에 비해 음원 손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 스튜디오는 고음과 중저음도 살릴 수 있게 튜닝을 했다. 클래식이나 발라드풍의 가요를 들어도 맑고 청아한 사운드가 귀에 흡수된다.

사용자 주변 상황에 따라 소음을 처리하는 '맞춤형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 시끄러운 곳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43만5000원.

/박상훈기자 zoon@

'쏠캘린더' 음력 기능 추가

다음이 만든 안드로이드 대표 캘린더 앱 '쏠캘린더'에 음력 일정 관리 기능이 2일 추가됐다. 음력 생일, 제사일 등을 매번 계산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쏠캘린더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편리한 사용성, 감각적인 30여 종의 위젯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쏠캘린더에 등록한 음력 기념일은 자동 동기화를 통해 구글 캘린더나 애플 아이클라우드 등에도 반영된다.

/박상훈기자

모바일 '메신저 삼국지'

한·중·일 모바일 메신저 삼국지가 펼쳐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 90%를 웃돌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의 인기 무료 안드로이드 앱 상위 10개 가운데 8개가 카카오 게임일 정도며 카카오톡과 연동되지 않는 모바일게임은 흥행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은 최근 PC 버전으로도 출시돼며 PC 메신저 1위 네이트온을 바싹 추격하고 있다.

일본은 '라인'이 시장점유율 70%가량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의장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만든 라인은 일본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라인 주식회사를 별도로 탄생시키기도 했다. 네이버는 일본을 상대로 한 검색 서비스를 종료하고 라인에 전사적 투자를 쏟고 있는 상태다.

최근 열린 라인 전 세계 이용자 3억 명 돌파 행사에서 이해진 의장은 "한국 시장에서 라인이 카카오톡을 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 시장에서만큼은 라인이 1위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라인 주식회사 모리카와 아키라 대표는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라인 스티커가 일본인의 감수성에 잘 맞았다"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멀어진 소통의 단절 경험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위챗'이 주름잡고 있다. 중국의 초대형 IT기업 텐센트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를 광고 모델로 쓸 정도로 대대적인 투자를 벌인다. 위챗은 중국인에게 특화된 은행카드 연결 기능 등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모기업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각종 게임 연동도 위챗의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챗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점이 특징"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한정된 시장에 머무르지 말고, 모바일 메신저 전 세계 1위 미국의 '왓츠앱' 성공 사례 분석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기자 unlaw@metroseoul.co.kr

한·중·일 '손안의 대화창'

- 카카오톡 국내 점유율 90% 차지해 독주 시대
- 일본 스마트족 70%는 아기자기한 라인 애용
- 중국 정부가 미는 위챗 메시 내세워 자국 평정

네이버 '어린이 SW인재' 교육 첫발

네이버가 어린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네이버㈜는 NHN 넥스트(NEXT)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NHN 넥스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네이버가 직접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2종류의 수업을 제공한다.

3~4학년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를 통해 스스로 구성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5~6학년 학생들은 단일보드 '아두이노'를 활용해 전등을 켜는 법, 음향 크기를 조절하는 법 등 사물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됨을 인지하고, 스스로 이를 적용시켜 결과물을 얻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NHN 넥스트 이민석 학장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중 가장 적합한 방법이 소프트웨어 교육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기자

'K팝스타3' 음악 정면승부 통했다

2회 시청률 9%↑·오디션 프로그램 부활 신호탄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이하 'K팝스타 3')가 오디션 프로그램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달 24일 첫 방송에서 8.4%(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한 'K팝스타 3'는 1일 두 번째 방송에서 9.0%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상승 채비를 갖췄다.

'K팝스타 3'가 방송되기 전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15일 막을 내린 엠넷 '슈퍼스타K 5'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이 참패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K팝스타 3'는 지난 시즌과 달리 초반부터 화제몰이에 성공하며 역대 시즌 중 최고의 흥행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음악 본연에 충실한 구성과 연출의 힘으로 풀이된다.

심사위원 양현석·박진영·유희열(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끈 '슈퍼스타K'를 비롯해 단명한 여러 유사 프로그램들은 콘텐츠가 아닌 형식의 차별화에만 치중하다 대중의 무관심을 자초했다. 선발 기준이 모호한 새로운 경연 방식은 혼란만 가중시켰고 음악이 아닌 출연자의 스토리에 기댄 '인간극장'식 억지 감동은 공정성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K팝스타 3'는 현란한 연출을 배제한 채 시청자가 온전히 무대와 음악에만 집중하게 했다. 첫 회에 전자소니 이채은, 절대음감 김은주, 감성 기타리스트 정세운, 여고생 트리오 짜리몽땅 등 화제의 인물을 배출한 데 이어 2회에서는 샘김, 야오, 위이타오, 장한나, 남영주, 이재연, 이채영 자매 등 빼어난 재능을 지닌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K팝스타 3' 박성훈 PD는 "오디션의 음악 자체가 지겨워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패는 좋은 음악과 무대 그 자체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엑소 앨범 100만장 도전장

팝 발라드 '12월의 기적' 발표

대세 그룹 엑소가 9일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100만 장 돌파 작전에 들어간다.

엑소는 9일 낮 12시 음원 사이트에 타이틀곡 '12월의 기적'을 전공개하고 9일은 오프라인에 앨범 전체를 공개한다. '12월의 기적'은 겨울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과 아름다운 스트링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발라드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과 겨울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5곡의 신곡에는 곡마다 각기 다른 멤버들이 참여했다. 타이틀곡의 한국어 버전은 D.O.·백현·첸, 중국어 버전은 루한·백현·첸이 함께 불렀다.

'12월의 기적'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리움이 커지면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고 세상을 그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정작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엑소는 이번 스페셜 앨범으로 1년에 100만 장 돌파라는 기록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6월 발표한 정규 1집 'XOXO'와 8월 출시한 리패키지 앨범은 합쳐 지난달 말까지 94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허벅지에 새긴 키스마크

4일 디지털 싱글 '곰주'를 발표하는 나인뮤지스가 모델돌 다운 우월한 몸매로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일 공개된 앨범 재킷 이미지에서 경라는 긴 다리를 교차시켜 요염한 섹시한 포즈와 요염한 눈빛으로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 허벅지에 묻은 건 뭔가요.

/유순호기자

송혜교·강동원 부부 호흡

영화 '두근두근 내인생'

톱스타 강동원(사진 오른쪽)과 송혜교(왼쪽)가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이 영화는 조로증 소년과 자신들보다 빨리 늙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발간 3개월 만에 14만 부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김애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강동원은 33세에 16세 아들을 둔 아빠 대수 역을 맡아 기존의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송혜교는 17세에 예상치 못하게 엄마가 됐지만 당찬 성격으로 아들을 보살피는 미라 역을 맡아 모성애 연기를 펼친다.

/이진환기자 lsh0427@

star bag

1박2일' 시즌3 첫 게스트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KBS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의 첫 게스트로 나선다.

2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수지는 지난달 진행된 시즌3 첫 녹화인 혹한기 야영 캠프 편에 참여했다. 이날 '모닝 엔젤'로 등장해 기상 미션에 성공한 멤버들과 짧은 시간 만나고 자리를 떴다. 수지가 출연한 녹화분은 8일 방송된다.

태풍 피해 필리핀에 1억

한류스타 **장근석**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1억원을 기부했다.

소속사는 2일 "장근석이 유니세프를 통해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면서 "이번 기부금은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뒤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 국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은 현재 방영 중인 KBS2 '예쁜 남자' 제작발표회 당시 팬들에게 받은 16.66t의 쌀 화환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펼쳐왔다.

겨울 감성곡 '서브소닉' 발매

가수 **윤하**가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감성 곡으로 컴백한다.

윤하는 6일 겨울 스페셜 미니앨범 '서브소닉'을 발매하고 6개월여 만에 활동을 시작한다. 타이틀곡은 실력파 힙합 뮤지션 이루펀트와 함께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하와 힙합 뮤지션과의 작업이 어떤 음악으로 탄생됐을지 관심을 모은다. 윤하는 한정판으로 특별 제작된 1만 장의 앨범을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공개한다.

호주 카지노재벌과 열애설

슈퍼모델 **미란다 커**가 백수 올랜도 블룸과 이혼하자마자 억만장자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호주 연예주간지 우먼스 데이는 최근 '억만장자와 슈퍼모델의 뜨거운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커와 패커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상대는 호주의 카지노 재벌 제임스 패커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호주 부자 3위에 오른 바 있다. 올해 9월과 10월에 각각 이혼한 패커와 커는 약 2개월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센 언니의 '호피무늬 속옷' 수줍은 변신

블랙·브라운 일색 서 탈피 핑크·민트 등 파스텔톤에 꽃무늬 섞어 여성미 강조 깃털·금속 등 장식은 화려

여성의 섹시한 매력을 더해주는 애니멀 프린트가 올겨울 한층 나영해졌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점령하며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비비안 김희연 수석 디자이너는 "이번 시즌 속옷에서는 블랙·브라운 컬러를 기본으로 핑크·민트 등 산뜻한 파스텔톤 색상으로 표현된 애니멀 프린트나 꽃무늬와 결합한 패턴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브라운톤의 레오파드(호피무늬)는 클래식하지만 가장 섹시한 느낌을 준다. 블랙 색상의 레이스나 살짝 비쳐져 있는 시폰 원단, 반짝이는 그리터 등이 장식된 란제리는 애니멀 프린트 고유의 고혹적인 매력이 물씬 풍긴다. 특히 브래지어의 경우는 가슴 가운데에 달린 모티브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리본이나 금속 장식이 달려있지만, 이번 시즌은 큰 리본, 긴 깃털 장식 등으로 화려해진 것이 특징이다.

화려한 색을 입은 애니멀 프린트도 새롭게 뜨고 있다.

핑크·민트·옐로 등 화사한 색상은 애니멀 프린트와 어우러져 한결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애니멀 프린트에 다소 센 느낌이 부담스럽거나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란제리를 고르는 게 좋다. 잔잔한 꽃무늬가 함께 사용된 애니멀 프린트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할 수 있다.

◆남성 속옷도 애니멀 프린트

애니멀 프린트는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멋쟁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단색, 스트라이프 패턴을 뛰어넘는 선호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블랙·그레이 색상은 남성만의 강인한 야성미를 느러낼 수 있으며, 광택 원단을 사용한 드로즈는 여성 란제리와 커플룩으로 연출하기 좋다.

/제지원기자 jzsi@metroseoul.co.kr

세븐일레븐 올들어 모바일결제 168%↑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편의점 업계에도 모바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모바일쿠폰·모바일 상품권' 등 모바일 결제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8.1%보다도 3배 이상 신장한 것이다.

세븐일레븐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가 시작된 것은 2007년 G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e쿠폰을 판매하면서부터다. e쿠폰은 소비자가 편의점 상품을 오픈마켓에서 구매 후 받은 '디지털쿠폰'을 편의점으로 가져와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편의점 업계가 이런 서비스를 벌이고 있으며, 소셜커머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 이용층이 편의점의 주 고객인 20~30대 젊은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픈마켓·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저렴한 구매 방법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쇼핑 패턴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븐일레븐은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관련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쳐 이용 고객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이쿠폰, 캐쉬슬라이드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료·과자 등 20여 가지의 상품에 대해 15%에서 20%까지 할인해 주는 쿠폰을 운영한다. /정해림기자

엔제리너스 매장마다 구세군 자선냄비 설치 엔제리너스커피는 2일 오전 엔제리너스커피 두교점에서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의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전국 270여개 매장에 자선냄비를 별도로 설치해 24일까지 운영하고 모아진 성금은 구세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 제공

스키·스노보드 "간식 먹고 탑시다"

거울레저 시즌 개막에 제력보충 식음료 눈길

겨울 레저 스포츠의 메카인 스키장이 지난주 전국적으로 개장했다. 스키나 스노보드 등은 활동량이 많아 체력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간단한 식음료를 통해 틈틈이 소모된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고카페인 논란으로 에너지 음료에 대한 소비가 주춤하면서 피로 해소 및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음료나 칼륨 함량이 높은 코코넛 음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약품의 '프링글'은 비타민C를 칼로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제로칼로리 제품이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 및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겨울철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영양소다.

'비타코코 코코넛워터'는 설탕 등 인공첨가물을 담지 않고 신선한 그린 코코넛에서 얻은 코코넛워터를 그대보 담았다. 차가운 상태로 운동이나 야외 활동 후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다. 코코넛워터는 5대 영양소와 전해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해 칼륨 함량이 높아 운동 후 피로 해소와 근육의 이완, 정상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됐다.

스키를 타면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는 야외에서도 간편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나 육포를 추천한다.

롯데제과 헬스원의 '파워에너지바'는 에너지의 순간 충전을 콘셉트로 선보인 제품으로 초콜릿 위에 땅콩, 아몬드, 크랜베리 등을 혼합한 제품이다. 비타민·미네랄·L-카르니틴·콜라겐아미노산 등도 함유해 운동을 즐기면서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샘표의 '질러 직화육포'는 일반적인 육포가 고기를 말린 건조 제품인 데 비해 고기를 훈연 후 직화로 한 번 더 구워 식감이 부드럽고 촉촉한 것이 특징이다. 스틱형 소포장으로 휴대가 편리하고 고기의 맛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진공 포장을 도입해 야외 활동 시 먹기에 편리하다.

/정해림기자 niceday@

훈남의 니트카디건 늘어지면 후줄근남 물보다 바람세탁을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실용성과 보온성을 겸비한 니트 카디건이 필수 오피스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니트 카디건은 와이셔츠 위에 입으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디자인과 컬러에 따라 스타일에 포인트가 돼 인기다. 또 입고 벗는 것이 자유로워 사무실에 하나쯤 비치해놓으면 춥고 쌀쌀한 겨울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재 특성상 오염이 잘 되고 늘어나기 쉬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테리토리 이지원 디자인 실장은 "니트는 다른 직물에 비해 모양이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옷걸이에 걸어두기보다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습기가 많은 곳에 둘 때는 니트 사이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옷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니트는 자주 세탁하기보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널어 환기시켜 주는 것이 옷감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탁은 해야 할 경우 세탁기에 넣고 돌리지 말고 손빨래를 이용해 5분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지원기자

<So Young>

마늘 먹으면 '나도 소영'

디톡스 기능 탁월한 식품 고기 회식때 함께 섭취를

송년 모임이 많은 12월이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계속되는 과식과 피로는 체내에 독소를 쌓이게 한다. 체내에서 정화되지 못하거나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독소로 인해 인체의 원활한 신진대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독소를 쏙 빼내줄 착한 식재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늘이다.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다.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마늘에는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과 게르마늄 등이 풍부해 해독 기능이 뛰어나다. 특히 셀레늄은 몸 안에 쌓인 납·카드뮴·수은 성분 등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오염 물질에 견디는 힘도 높여준다.

화학 분야 최고의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지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이 생성하는 2차 물질인 설펜산이 체내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밝혔다. 활성산소가 많으면 노화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또 모임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학 서적인 본초비요에 따르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고기를 잘 소화시킨다고 한다. 본초편의 에는 마늘 냄새가 고기 속에 퍼지면 고기의 냄새를 거둔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마늘산업연합회 김정준 회장은 "예로부터 마늘은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불릴 정도로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이로운 식품이다"며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빈속에 다량 섭취하거나 오랫동안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쪽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해원기자

양심 두둑해 뜬 고기집

구이앤캠프·지봉이식당 고기량 확인 저울 비치 종로상회는 산지직거래 CSI치킨 상권별 가격제

일부 중소 외식업계 가운데 경기불황에도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이들 업체들은 마케팅 홍보 등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과 믿음을 지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심저울, 원산지 라벨, 가격 자율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범핀장 콘셉트의 고깃집 프랜차이즈 '구이앤캠프'는 1인분 기준 메뉴가 아닌 이용자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담아서 무게를 재도록 했다. 100g 기준으로 각 소비자마다 다르게 값을 매긴다. 일명 '양심저울'을 이용해 그릇을 제외한 고기 값만 내면 된다.

'지봉이식당'은 주문을 할 때마다 고기의 양과 이력을 표시한 라벨을 함께 제공한다. 저울도 테이블마다 배치돼 있어 고기의 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종로상회'는 국내산 돼지 생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산지 직거래를 선택해 유통 비용을 대폭 줄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쓰리고 행복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모든 가맹점에 같이도 일주일 안에 냉장 상태의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직접 배송하고 있다.

'CSI치킨'은 '대한민국 양심치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맹점마다 지역 상권에 맞게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자율제'를 시행해, 가맹점에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게 설정할 경우 6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프라이드치킨을 즐길 수 있다.

/김동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스낵 블루칩' 저열량 감자칩·고구마칩 열풍

'건강한 이미지' 먹혀

최근 들어 스낵 시장에 여풍이 거세다. 매출 1조원대의 스낵 시장이 최근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스낵, 건강 스낵 등을 출시하고 있는 것.

여성들의 스낵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감자 스낵이다. 감자 특유의 바삭한 식감으로 여성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감자 스낵이 최근에는 칼로리 걱정 없는 저칼로리 저지방 제품을 내놓으면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심 켈로그의 '스페셜K 라이트 칩'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삭하게 구워낸 감자칩에 맛있는 양념을 더해 맛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감자칩 1봉지가 93kcal 밖에 되지 않아 몸매 관리 중인 여성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워크림 어니언맛과 바나나바베큐맛 등 다양한 맛이 있다.

농심의 '수미칩'도 저지방 감자칩이다. 100% 국산 감자에 지방 함량이 일반 감자칩보다 25%가량 낮아 착한 감자칩으로 통하는 수미칩은 수미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칼로리를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상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설탕 및 합성 감미료의 사용 없이 신선한 고구마만을 바로 쪄서 말린 제품으로 100% 고구마 외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정해원기자

강강술래 "으슬으슬 겨울, 스파여행 쏩니다"

이달말까지 홈피 고객마당 신청고객 중 50명 추첨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스파여행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www.sullai.com)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올리면 50명을 추첨해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의 스파와 온천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증정한다.

서울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천천향은 게르마늄 함유 온천수(49도)가 공급돼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과 정신적인 피로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이달 15일까지 알뜰 송년세트(한우불고기 500g+솔래양념 520g+한돈양념 500g+되지양념 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휴대하기용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질좋은 한우떡갈비(3세트 1.08kg)는 4만2000원, 특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는 2만52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된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ml 5팩 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세트(800ml 10팩 30인분) 7만5600원, 소용량 곰탕 선물세트(350ml 5팩 10인분)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상계점과 눈봉농원점도 20명 이상 단체 고객을 위해 다양한 명석 한·화목한 삼지원 등 세 종류의 실속 연회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모둠회·잡채·삼색전·연어샐러드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정해원기자

"따끈한 호떡 챙기세요" 이마트는 2일부터 일본 고바야시사로부터 직수입한 하루핫팩 4종을 판매한다. 가격은 5000~6000원이다. 이 제품은 발열 온도가 장시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보온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 제공

비알코리아 4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2013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 우수상' 장관표창을 받고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문성 강화, 각종 포상 제도를 통한 [illegible] 통한 VOC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서비스품질우수상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illegible]기자

빙판길 위 꽃할배 장갑 끼고 걸으세요

겨울 노년층 '낙상 주의보'

겨울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고 있다. 눈이 내리면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많아져 빙판길 낙상 사고도 많아지는데 특히 노년층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보다 유연성과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 노인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의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일 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는데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10%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며 2.5%는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에 지료를 받는 실정이다.

낙상에 의한 골절은 주로 척추와 대퇴골 그리고 손목뼈 부위에 나타나며 노인의 골절은 수술하기 어렵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낙상을 야기하는 주위 환경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노인들은 집 안에서도 안경을 착용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골밀도가 낮은 고령의 노인들이라면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움직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둔한 옷은 피해야 된다.

이와 함께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도 필수다. 중년 이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해야 골 소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타기, 수영, 걷기 등을 통해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

이주영 서울시 북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크다"며 "낙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침상 안정은 기관지 폐렴이나 욕창, 변비, 배뇨 장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낙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비만 남성일수록 전립선비대증 위험 높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조사

뚱뚱한 남성일수록 전립선도 뚱뚱해져 전립선비대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3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남성 4719명 중 2회 이상 경직장초음파를 받은 사람들의 의무 기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사람이 전립선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4719명의 평균 BMI는 24.5, 평균 전립선 크기는 28.4cc였다. 하지만 BMI가 20 미만인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25.6cc, 30을 초과한 고도비만 남성의 경우는 30.3cc로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립선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M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전립선 크기가 0.5c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 체격을 가진 40대 남성(키 171cm, 몸무게 72kg, BMI 24.5)의 체중이 3kg 증가하면 BMI가 1 증가해 전립선 크기도 0.5cc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욱이 연령이 10세 증가할 때마다 전립선 크기는 4.1cc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돼 전립선비대증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중요한 것은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 요도와 방광을 압박해 배뇨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과체중이 전립선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만약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고 가끔 끊겨서 나오거나 ▲소변을 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하거나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전립선비대증 3대 증상이 있다면 자신의 전립선 건강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지난 9년간의 건강검진 데이터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전립선 크기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한국인 감기앓이 일년에 평균 세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도 감기앓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최근 종합감기약 '화이투벤' 국내 출시 30주년을 맞아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감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1년에 3회(3.12회) 정도 감기에 걸리며 한 번 걸리면 약 1주일(56.41%) 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감기 증상을 보면 가장 흔한 증상은 코감기(60.2%)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콧물, 코막힘이며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기는 목감기(57.5%)와 발열, 통증 등을 호소하는 몸살감기(45.0)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절반 이상(58.8%)이 초기에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보다 짧게 앓는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초기에 감기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감기 지속 기간이 길수록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배연희 한국다케다제약 일반의약품 사업부 부장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기 증상과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투벤은 지난 1983년 처음 발매된 이후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감기약으로 현재 총 5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대장암·혈압 건강강좌

대학병원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중앙대병원은 3일 오후 2시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대장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또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오는 4일 오전 9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혈압 지키기'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건강강좌는 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혈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전달해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강좌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식사와 운동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세계 에이즈의 날 맞이해 인솔, 무료 HIV 검사 진행

인솔(www.gn-sol.co.kr)이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지난달 28일 가천대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에이즈 제로'라는 주제로 열린 캠페인에서는 에이즈 인식 개선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에이즈 바로 알기 퀴즈 등의 이벤트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인솔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검진 전문 사이트인 이스딤(www.[illegible].kr)과 함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라퀵 어드밴스'를 이용한 무료 HIV 검사도 진행됐다.

인솔은 구강 점막을 이용해 HIV를 20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오라퀵 어드밴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홍콩 암연구소서 특별강연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최근 홍콩에서 열린 '제18회 홍콩암연구소 연례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백 원장은 학술대회 초청 연사로 나서 '한국인의 유방암과 종양성형수술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강연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학술대회에는 홍콩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적인 암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20년간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급격한 유방암 발생률 증가와 함께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백 원장의 선구자적인 수술법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백 원장은 지난 1986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방보존술을 시행한 유방암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황재용기자

이기는 야구로 우승 해법찾는 두산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단언컨대 김진욱 감독이 두산에서 해임된 이유는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졌기 때문이다.

단기전은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결정적 기회가 찾아오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은 얼마 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3 포스트시즌에 대해 "승리에 취해 이길 수 있는 팀이 못 이겼다"고 평가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먼저 2승을 올린 넥센, 한국시리즈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패퇴한 두산을 이르는 말이었다.

두산은 어떤 구단보다 우승에 목마르다. 2001년 이후 포스트시즌 단골이었지만 번번이 우승에 실패했다. 2012년과 2013년은 우승전력을 만들었다고 자부했고 우승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삼성에 막혀 정규리그 1위에 오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우승에 실패했다.

내부적으로는 수장에 대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듯 하다.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감독이 운용을 못했다는 불신이다. 그래도 준우승 실적은 무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력편성 과정에서 감독과 불화가 촉발되면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김진욱에게는 지독하게도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다.

두산은 송일수 감독에게 새로운 지휘봉을 맡겼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첫 사령탑 발령장을 받은 송일수는 미지의 인물이다. 그는 취임 회견에서 단서를 줬다. "김성근 감독과 니시모토 유키오 감독이 롤모델이다.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근과 1960년대 후반부터 한큐 브레이브스 황금기를 이끈 명장 니시모토는 비슷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불타는 열정, 비타협, 엄격한 장악력, 이기는 경기를 모토로 하는 인물들이다. 두 감독은 자신이 지휘한 팀을 최강으로 이끌었다. 김진욱 카드를 버린 두산은 불승의 김성근, 필승의 니시모토를 원하고 있다. 과연 송일수 야구는 두산의 우승 갈증을 어떻게 풀어줄까. /이선호 야구전문기자

성공적시즌 보낸 골퍼 박인비 3위에 올랐다

'골프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올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골프 선수 3위에 선정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올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선수 10명' 가운데 3위에 박인비를 올렸다.

골프채널은 "올해는 박인비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라고 평가하며 "메이저 대회 3연승에 세계 랭킹 1위,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선정 등의 성적을 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팀	1Q	2Q	3Q	4Q	합계
우리은행	23	19	25	10	77
국민은행	17	14	12	21	64

FA 추신수 텍사스행?

ESPN "가장 높은 몸값 제시할 듯"…디트로이트·양키스도 영입 '눈독'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자유계약선수(FA) 추신수(31)의 영입전쟁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뉴욕 양키스의 3파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텍사스는 추신수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카를로스 벨트란(36) 영입을 위해 올 겨울 상당량의 돈을 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키스 역시 커티스 그랜더슨(32)이 떠난 자리를 메워야 하고, 최적의 리드오프(1번 타자)를 찾고 있는 디트로이트 역시 출루율이 높은 추신수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추신수의 다음 팀이 텍사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ESPN은 "추신수의 몸값이 너무 비싸 갈 수 있는 팀이 한정돼 있다"며 "가장 높은 계약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텍사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2일 보도했다.

또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언론 '디트로이트 뉴스'는 2일 추신수를 영입하는 문제에 미구엘 카브레라가 엮여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데이브 돔브로스키 단장은 카브레라의 1루 전향에 아직 답변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디트로이트 뉴스'는 "디트로이트는 카브레라를 1루수로 옮길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카브레라가 1루수로 이동할 경우 빅터 마르티네스는 지명타자로 남고 유망주 닉 카스텔라노스가 원래 포지션인 3루를 맡게된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디트로이트는 좌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MLB닷컴은 최근 추신수의 양키스행을 예상했다. 최근 공격형 포수 브라이언 맥켄과 계약하며 타선을 강화한 양키스는 타선 보강의 마지막 퍼즐로 추신수를 담아내고 있다. 추신수는 엘스베리보다 건강하고 벨트란보다 젊고 그랜더슨보다 공격에서 전반적인 득점 생산력이 높은 타자이기 때문이다.

/장병호기자 ysw@metroseoul.co.kr

루지 대표팀 사상 첫 월드컵 톱10

한국 루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 톱10에 진입했다.

대표팀은 1일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2013~2014 월드컵 3차 대회 팀 계주에서 2분30초446의 기록으로 14개 출전팀 중 8위에 올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월드컵 대회에서 8위에 오른 것은 한국 썰매 종목 역사상 처음이다.

봅슬레이 대표팀이 대륙별 대회인 아메리카컵에서 올해 세 차례 금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월드컵에서는 아직 10위 내에 들지 못했다.

올 시즌 대표팀의 지도자로 합류한 독일 출신의 슈테펜 자르토르 코치는 5위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첫 월드컵 8위 차지한 루지 대표팀. 왼쪽부터 최은주, 김동현, 조정명, 박진용, 성은령. /연합뉴스

보통사람의 소통방식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페이스북은 관계를 공존시키는 서비스다. 나와 타인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관계 맺기는 인류의 시작부터 삶의 중요한 의미였다.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물리적 장애가 개선됐고, 정보기술(IT)의 진보 속에 시공간적 제약이 줄었다. 나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흥미를 전하거나 지지를 위한 관계 형성도 손쉬워졌다. 친구 수락이 되는 순간 사용자의 인간관계는 확장을 넘어 진화된다. 그래서 더 행복해졌나.

카카오스토리는 감성의 공유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가진 관심사, 소소한 일상이 주는 감정적 자극을 타인과 함께할 수 있다. 우리로 묶여지는 관계 위에 떠다니는 칭찬 위로 격려. 웃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처럼 전다. 때론 나를 디스리는 도구로 쓰인다. 나의 의지를 누군가에게 보이며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다. 가족, 친구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버팀목인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공유를 위한 공유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밴드 열풍이 무섭다. 아이러브스쿨 이후 주춤했던 동창 문화가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스마트폰이란 더 편리해진 도구 덕분에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소통이 이뤄진다. 이기에는 동참이란 막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영향력 또한 무시무시하다. 오늘을 위로하고 위로받다 보면 무난한 내일을 꿈꿀 수 있다. 그 사이에 오늘이 평화되가는 건 아닌지.

사람 간의 소통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당연히 다불어 가는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소통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소통의 방식에 적응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아야 할 내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라코스테의 "트렌드는 변해도 스타일은 영원하다"라는 브랜드 철학도 이와 같다. '무엇'에 집착하기보다 '어떻게'에 집중하는 소통이었으면 싶다.

누군가는 말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 보통 사람의 소통 방식이 인류의 평균일 테니.

/(주)피엔플래닝(www.dr.co.kr) 대표

날씨

12/3 火 일출시각 07 30 일몰시각 17 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1.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4/12 · 울릉도 · 대구 1/12 · 포항 · 울산 1/12 · 부산

추운 날씨는 호르몬 이상 분비를 가져와 식욕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채소나 해조류 나물을 먼저 먹으면 적은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9		2		
		9		3		5		8
		5	9					7
	9	4	1		5	6	8	
		2	6					9
		8		6		9		5
	1			4		7		
							6	

2		4				6		1
5		9		1		8		2
			7		5			
7				8				6
	3	5		2		4	8	
4		3				7		8
	9	7				2	5	
			4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마플이 미디어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증권회사 그만두고 가업 승계 아버지 도움 끊기면 실패우려

고향 남자 73년 2월 24일 음력 오후 8시

Q 중견 증권 관련 회사에 다니다 아버지의 무역회사를 이어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까 합니다. 무역 업무가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주와 맞나요.

A 생일에서 태어난 연(年)지를 볼 때 문서의 합(合)을 이는 글자가 있으나 보금을 이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군신(君臣)간을 막아 다된 일을 좌절시키는 술리함이 있습니다. 연지에 살이 있는데 이 살은 글자가 격각(隔角)이 되어 진격하는 군대의 길을 막는 생벽이나 강물과 같으니 좌절 같은 결과가 오기 쉬운 중단수의 발동이지요. 한 우물을 파듯이 한 길로 매진하면 성공합니다. 이상이 높고 시련과 장애가 따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기(根氣)는 있습니다. 부모궁이 천을귀인(天乙貴人)이니 아버지의 도움을 항상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운만큼은 부모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좌절을 겪게 됨을 인식하고 진행하세요.

맞선 상대들에게 번번이 퇴짜 후년에 짝 나타나니 기다려야

이어실 남자 86년 1월 21일 음력 오전 5시

Q 연봉 수준이 꽤 높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보는 족족 거절당합니다. 이러다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기도 안 할 텐데 그냥 고향 내려가 장사나 할까요?

A 청상하고 선량한 관이지만 주체성이 부족해 장사는 잘 맞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말은 귀에 순하고 잘못한다는 말은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칭찬하는 말에는 아첨이 들어있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정 위해주는 스승인 것이다. 칭찬하는 말은 한때 기분 좋을지 모르니 나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2015년이 돼야 배우자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미를 만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나 공연히 들떠 방황하지 말고 자기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진정하십시오. 12월 지출이 많이 발생되니 자금 계획 잘 세워 새해 벽두부터 신용카드 메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3일 (음 11월 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 놓치지 마라. 60년생 빛을 돕고 싶으나 방해받는다. 72년생 재운이 튼튼해 수입 크게 는다. 84년생 샘물 같은 인연과 마주한다.

소 49년생 자녀에게 재산 빨리 물려주면 후회. 61년생 자랑도 자리 봐가며 하라. 73년생 직장인은 혼자 복 지고 장구 친다. 85년생 청춘은 쏟아지니 소득이 없다.

호랑이 50년생 잘자리에서 실언 않도록 조심. 62년생 형편이 좋아져 여유가 생긴다. 74년생 직장 근무 환경이 좋아져 출근이 유쾌. 8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토끼 51년생 배우자 억압하면 잃는 게 많다. 63년생 기회 잡을 때 새로운 도전 주저하지 마라. 75년생 전진하고 싶으나 장애물 생긴다. 87년생 구설수 있으니 조심.

용 52년생 명예로 인한 다툼 조심할 것. 64년생 뜻이 맞으면 돕는 사람이 줄을 선다. 76년생 상사의 아는 데 참 묶어둬라. 88년생 공들여온 꿈이 마침내 실현된다.

뱀 53년생 자녀에게 긴 잔소리는 반발심만 키운다. 65년생 아랫사람 어려움에 관심 가져라. 77년생 배우자와 모처럼 파티. 89년생 좋은 일인 지갑 가까이 열어라.

말 42년생 감언이설 조심해 손해 막아라. 54년생 배우자가 자꾸 얼굴 봐줘 싫어진다. 66년생 평판 좋아질 일 생기니 기대하라. 78년생 요행 바라면 큰 낭패 본다.

양 43년생 고연히 해결의 모처럼 좋기분. 5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다. 67년생 잘 흘린 만큼 성취감 커진다. 79년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인기에 환호한다.

원숭이 44년생 자식 자랑도 눈치껏 하라. 56년생 선의의 거짓말로 위기 넘긴다. 68년생 마음먹은 계획이라도 뒤로 미뤄라. 80년생 너무 앞서는 소리는 탈이익 부른다.

닭 45년생 반가운 벗이 소식도 없이 찾아온다. 57년생 변수 많으니 끝까지 지켜봐라. 69년생 걱정한 일은 극적으로 반전된다. 81년생 인간의 달콤한 윤지에 흥벌.

개 46년생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지 마라. 58년생 위기 넘기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 70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 되새겨라. 82년생 가던 길 가는 게 좋다.

돼지 47년생 자녀에게서 희소식 들려온다. 59년생 직장에 모처럼 훈풍이 분다. 71년생 언제 터질지 몰랐던 일이 터진다. 83년생 아픈 기억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